

캐나다의 기록학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al Graduate Programs in the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English-Speaking Canada

정연경(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I. 서론 | 2. 학위과정 |
| 1. 역사적 배경 | 3. 이수학점 |
| 2. 선행 연구 | 4.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
| II. 연구 설계 | 5. 실습 |
| 1. 연구 내용 | 6. 연구 및 논문 |
| 2. 연구 방법 | 7. 전임 교원 |
| III. 캐나다 기록학 교육 과정 | 8. 전문 협회의 교육 지침서 |
| 1. 명칭 및 역사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학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기록학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웹사이트 내용 분석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내에서 기록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원의 명칭 및 역사, 학위 과정, 이수학점,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실습, 연구, 전임교원, 기록관련 협회의 지침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캐나다는 독립적인 기록학 석사학위 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성을 가진 기록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기록학 석사과정을 최초로 운영해 온 만큼 상당히 상세하고 탄탄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ACA의 기록학 교육 지침서는 발행된 지 오래되어서 기록학 교육은 각 대학원의 원칙과 SAA 지침서를 참고로 운영되고 있었다. 캐나다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 상황과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기록학 교육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끝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캐나다, 한국, 기록학,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석사과정, 학점, 교과목, 실습, 연구, 논문, 전임 교원, 교육지침서, ACA, SAA, MA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seful factors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archival program in Korea by analyzing archival graduate programs of the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English-speaking Canada. Name and history of the schools, degrees, credits, required and elective courses, practice, research, and faculty of archival programs, and the official guidelines of ACA and SAA are compared by analyzing web sites and literature review. It is found that Canadian LIS schools offer independent archival programs with a separate MAS degree or a specializ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e first LIS school

* 이 연구는 200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부교수 (ykchung@ewha.ac.kr)

• 접수일 : 2002. 11. 14 •최초심사일 : 2002. 11. 25 •최종심사일 : 2002. 12. 9

that has a separate MAS degree program, provides a systematically developed curriculum. It also reveals that Canadian archival programs are based on their own principles and SAA guidelines because ACA guidelines are out of date.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archival programs in Canada,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archival graduate programs in Korea are compared and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direction of successful archival education in Korea in the end..

I. 서 론

한동안 대부분의 기록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역사학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최근 문헌정보학으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록물 및 레코드 관리가 정보자원운영이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제 및 디지털화 지식을 제공하는 문헌정보학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과 기록학 교육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끌어내고자 문헌정보학을 기반으로 기록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검토·분석하였다. 캐나다는 북미에서 기록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서양 기록학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외국의 기록학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캐나다 지역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며 최근 Cox, Yakel, Wallace, Bastian과 Marshall(2001)이 캐나다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기록학 교육을 부분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캐나다의 교육과정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외국의 교육과정이라는 하지만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대학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본다면 기록학 교육과정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적 배경

캐나다의 기록 전통은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정부의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캐나다 정부기록관은 공식적인 행정 레코드 전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든 문헌적 매체를 수집·보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기록관은 전통적인 기록관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와 상호작용 하는 적극적인 문화적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12년에 Public Archives of Canada가 설립되었고, 1950년 이후에 캐나다 기록관리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출처 원칙과 같은 유럽의 기록 전통을 익히

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들어서 캐나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운동에 참여하였고 1970년대와 1980 년대에는 연구자의 요구 이해, 주제색인 및 가이드의 가능성 탐색, 정보학의 적용을 통한 주제 접근의 향상 도모,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자동화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 정보의 공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1975년에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이하 ACA)가 만들어지면서 즉각적으로 캐나다의 기록학 교육에 관한 지침서가 개발되었고 1981년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이하 UBC)에 처음으로 기록학 전공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 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발간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기록관련 문헌이 드물었으며 기록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록물과 레코드 관리 담당자의 신규 채용 시 전문직 교육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Casey, Carman, MacDonald(1997)는 1985년 이전에 임용된 대다수의 기록관리자들은 정식 기록학 교육을 받지 않고 역사학 공부를 통해 기록관련 전문직에 들어왔다고 했다. 1980년대 이후로 기록관리자들의 교육 개념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더 나은 능력을 갖춘 기록관리자들이 채용되었다. UBC 에 기록학 석사과정의 만들어진 이후, 영어권 캐나다에서는 University of Manitoba의 역사학과와 University of Toronto의 정보학부, 불어권 캐나다 지역에서는 몬트리올에 있는 Université de Montreal 과 Université de Quebec에서 기록학 교육이 대학원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선행 연구

캐나다의 기록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Eastwood(1983)는 UBC에 처음 기록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기록학 개론과 고급 기록학 외에 레코드경영, 자동화, 예방적 보존과정과 관련된 과목들, 실습과 논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록물의 본성과 배열 및 기술의 원칙, 기록물의 평가와 수집, 기록물의 역사와 기관과 봉사, 연구와 참고봉사와 접근을 4개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여기에 실무 경험, 제 2외국어, 법률적 지식, 역사적 지식, 경영적 지식, 문헌정보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so와 Kierstead(1989)는 UBC의 기록학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배경, 교육, 졸업 후 취업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종합하였다. Schaeffer(1994)는 기록관리가 전문직으로 개발되는 과정이며 기록학 교육이 레코드와 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기록적 사고로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Klumpenhouwer(1995)는 기록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직접 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과 논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UBC의 기록학 프로그램이 다른 환경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기록관리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가르쳐주었다고 하였다. Craig(1996)는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기록물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기술 및 연구의 증진을 강조하였다. Couture(1996)는 미래의 기록관리자들을 적합하

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무의 표준화, 정보기술의 적용, 평가 기능으로의 투자에 노력하여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록관리자들을 배출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하였다. Casey, Carman과 MacDonald(1997)는 정보학 분야에서 기록학, 도서관학, 레코드경영 분야가 중심을 이루며 이 세 분야는 서로 상호 교환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교육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계속교육, 실무기관과의 배치, 공동연구 주제개발, 전문 협회와의 협조,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교육을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Cook(1997)은 기록관리자의 전문적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기록관리자는 역사학자와 레코드관리자, 교육자로서 공공교육프로그램 키트를 통해 교육 현장과의 전문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Peters(1998)는 기록관리자와 레코드 관리자로 있는 UBC 졸업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을 측정하였다. 그는 기록 레코드의 배열과 기술, 수집 정책의 설계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에 전자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전자 레코드 경영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그는 기록 전문직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록학 교육의 상세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astwood(2000)는 UBC의 도서관, 기록학 및 정보학 대학원의 기록학 석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학원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학 안에서 독립된 분야로 그 학문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탄탄한 연구토대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논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Cox, Yakel, Wallace, Bastian, Marshall(2001)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학원 수준의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각 대학원의 강점을 파악하였으며 전임과 정년교수의 갑작스런 증가, 기록학 분야의 폭넓은 교과목 개설 등을 변화로 보았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내의 기록학 분야의 실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록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록전문 협회의 역할도 미약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많은 부분이 UBC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루었으며 실습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교육의 필요성 전문 협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 기록학의 핵심 내용 및 교육 방향이 주된 연구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Cox 등(2001)이 북미지역의 기록학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캐나다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다룬 것 외에 캐나다 기록학 교육프로그램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핵심과 필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관련 학회나 협회의 교육지침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기록학 교육에 얼마나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요소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보다 효율적인 교과과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 설계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학을 다루고 있는 캐나다의 대학원 명칭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갖는가? 둘째, 기록학 분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위과정은 무엇인가? 셋째, 기록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위한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는가? 넷째, 기록학 전공을 위한 필수과목은 몇 과목이고 무엇이며 그 중 문헌정보학 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기록학의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의 수는 얼마나 되고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지는가? 다섯째, 기록학 분야의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섯째, 기록학 교육에서 연구 능력을 키워주는 연구 관련 과목이나 논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곱째, 기록학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전임 교원은 몇 명이고 어떠한 경력과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가? 여덟째, 전문 협회의 지침서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과 실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전문 협회의 지침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기록학 교육 현황과 캐나다의 기록학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고 한국의 기록학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캐나다의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원은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이하 SAA)의 *Directory of Archiv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로 여기에는 교수진, 개설되는 교과목의 형태와 수, 프로그램의 강조점이 제공된다. ACA는 캐나다 내에 교육기관의 수가 적고 SAA의 Directory가 캐나다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 명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지침서와 관련해서 ACA는 1976년에 *Guidelines Towards a Curriculum for Graduate Archival Training Leading to a Master's Degree in Archival Science*와 1989년에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Year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me*을 발행하였고, SAA는 기록학 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1978년, 1988년, 1994년, 2002년에 각각 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개의 캐나다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SAA의 Directory(2002) 중에서 ALA가 인가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영어권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McGill University를 먼저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중 McGill University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도서관학 학위를 주고 사서직 훈련을 담당할 학교라는 의미가 있을 뿐 기록학이 특성화되어 있거나 독립된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기록학 설정과목도 2과목에 불과하였고 기록학 전임 교원이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 교육이 독립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UBC와 University of Toronto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대학원과 관련 학·협회의 웹사이트 내용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해 기록학 프로그램, 교과과정, 교과목에 관해 기술된 정보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보다 확장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기록교육 담당자나 대학원장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과과정에 공통되는 틀을 파악하기 위해 ACA와 SAA의 교육지침서의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Ⅲ. 캐나다 기록학 교육 과정

1. 명칭 및 역사

UBC는 1961년에 도서관학 학사(Bachelor of Library Science)과정을 시작해서 1963년에 ALA의 인가를 받고 1971년부터 School of Librarianship으로 2년제 도서관학 석사(Master of Library Science)과정을 시작하였다. 1981년에 역사학과와 협동으로 시작된 2년제 기록학 석사(Master of Archival Studies)과정은 기록학의 이론적 토대와 실용적 지식, 특수한 기술의 개발에 헌신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기록물과 기록업무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왔다. 1984년에 School of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이하 SLAIS)로 명칭을 바꿨으며 1990년에는 도서관학 석사과정과 기록학 석사과정을 분리하였다. 1995년에는 도서관학 석사과정을 문헌정보학 석사(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과정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1998년에 기록학/문헌정보학 이중 석사과정(Joint MAS/MLIS)을 만들어 두 과정을 동시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제 등록이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비해 University of Toronto는 1928년에 Library School of Ontario College of Education으로 시작해서 1936년까지 1년 과정의 대학 졸업증서(University Diploma)를 주었으며 1936년부터 1970년까지 1년제 도서관학 학사학위(Bachelor of Library Science)를, 1970년부터 1995년까지는 2년제 도서관학 석사학위(Master of Library Science)를 주었다.

1971년에 박사학위(Doctor of Philosophy)과정이 시작되었고 1988년에 정보학 석사(Master of Information Science)과정을 시작하였다. 1995년에 도서관학 석사와 정보학 석사가 정보과학 석사(Master of Information Studies: MIST)로 대체되고 3개의 특성화 부분 즉, 기록학, 정보시스템, 문헌정보학이 나뉘어졌다. 1972년에 Library School 이란 명칭이 Faculty of Library Science로, 1982년에는 다시 Facul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1994년에는 Faculty of Information Studies(이하 FIS)로 계속해서 시대적 흐름과 교육 방향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이상과 같이 문헌정보학 교육은 University of Toronto가 반세기 이상 앞서 시작했지만 기록학 교육은 UBC가 1980년대부터 독립과정으로 시작하여 훨씬 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시작을 1950년대 말로 보고 기록관리학 교육의 시작을 1990년대 말로 본다면 결코 오랜 역사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2. 학위과정

UBC는 학위과정에 Master of Archival Studies, 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Joint MAS/MLIS, Master of Arts in Children's Literature, Ph. D., Certificate of Advanced Study가 있으며 기록학으로 독립된 석사학위를 제공하는 것이 북미 지역의 다른 대학원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University of Toronto는 학위과정에는 Master of Information Studies(MIST), Ph. D., Graduate Diploma of Advanced Study가 있으며 MIST는 기록학, 정보시스템, 문헌정보학이라는 세 개의 특성화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양한 협동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Book History and Print Culture 전공은 대학원의 영어영문학 전공과 불어불문학 전공, 정보학부, 과학기술의 역사 및 철학 연구소, 중세연구센터, 비교문학센터, Massey College 협동으로 기록문자의 생성, 전파, 수용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학제적 석·박사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인 전문직 학습 센터(Professional Lear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일 워크숍에서부터 복잡한 수료증 프로그램까지 10여개의 과목을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웹을 통해 등록·수강할 수 있는데 이중 Records Management Certificate Program이 있다. 이는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dministrators(ARMA)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하루 중일 5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목들로 각 과목마다 집에서 해오는 연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ARMA에서 발급하는 수료증(Records Management Certificate)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UBC는 기록학으로 독립된 석사학위과정의 설정과 함께 문헌정보학과 기록학을 동시에 하는 이중석사과정 및 아동문학석사과정과 같은 다양한 학위과정을 제공하

고 있으며 University of Toronto의 학위과정은 많지 않지만 협동과정과 계속교육프로그램 안에서 기록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도 1999년부터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최정태(2000)에 따르면 협동과정으로 사학과가 주관하는 대학이 6개이고 문헌정보학과가 주관하는 대학은 2개, 문헌정보학과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1개로, 이후 기록관리학이 추가 개설된 연대 문헌정보학과와 서울대 협동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학과 중심의 협동과정이 많은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수학점

UBC의 기록학 과정은 1994년 여름까지 북미의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60학점을 요구했지만 1994년 가을부터는 UBC의 다른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현재 기록학 석사과정은 실습을 제외한 총 48학점(16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 첫 번째 두 학기 동안 8과목의 필수과목을 수강하고 여름과 겨울학기 사이에 인턴십을 한 후, 나머지 학기 동안 8과목을 듣거나 6과목과 논문 6학점을 들어야한다. 기록학/문헌정보학 이중 석사학위 과정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실습을 제외한 총 81학점(27과목)을 마쳐야하며 각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36학점(12과목)씩 수강해야 한다.

University of Toronto는 기록학 특성화로 정보과학 석사를 받으려면 총 48학점, 즉 공통 필수과목과 특성화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16과목을 이수해야한다. 이러한 이수학점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관리학 전공 이수학점인 24학점(8과목)의 2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정태(2000)가 기록관리학의 교과목 수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공 학점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4.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UBC의 기록학 과정에는 <표 1>에서와 같이 8개의 필수과목과 다양한 선택과목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매학기 13주 동안 3학점짜리 4과목을 수강함으로써 2년 안에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다. 첫 학기에 제공되는 필수과목은 Archival Diplomats, Arrangement of Archival Documents, The Judicial Context of Canadian Archives, Preservation이고, 두 번째 학기의 필수과목은 Description of Archival Documents, Management of Current Records, Selection and Acquisition of Archival Documents, Archival Research and Scholarship이다. 선택과목 중에서 Topics in Archival Automation, Topics in the Management of Records와 Seminar는 매 학기마다 2-3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개설된 과목은 Standards-Based Archival Automation, Electronic Records,

Administering Freedom of Information & Protection of Privacy Legislation, Management of Audiovisual & Non-Textual Archive, Information Technology & Archive,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as Evidence이다. 문헌정보학 과목은 하나도 없이 기록학 과목에만 집중하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있으며 최대한 12학점(4과목) 까지 다른 대학원의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표 1〉 캐나다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

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명칭/소속	School of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SLAIS)	Faculty of Information Studies(FIS) Archival Studies specialization Concentration on Electronic Records
학위과정	Ph.D., Master of LIS, Joint MAS/MLIS Master of Archival Studies Certificate of Advanced Study Master of Arts in Children's Literature	MIS Ph.D.
이수학점	48학점	48학점
필수과목	Archival Diplomatics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The Juridical Context of Canadian Archives Preservation Description of Archival Documents Management of Current Records Selection and Acquisition of Archival Documents Archival Research and Scholarships	Information in the Social Contexts Management of Information Organizations Research Methods -----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Archives Concepts and Issues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Archives Programs and Services
선택과목	Archival Public Services Database Design Management of Libraries and Archives Archival Systems and the Profession Research Methods in Libraries and Archives Directed Research Project Topics in Archival Automation Topics in the Management of Records Seminar Directed Study Internship Professional Experience Thesis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ed Information Specialized Archives Records Management Rare Books and Manuscript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racticum History of Records and Records Keeping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Designing Electronic Description Tools Archives: Access, Advocacy and Outreach Analytical and Historical Bibliography I/II History of Books and Printing
실습	Internship 선택	Practicum 선택
연구	논문(6학점) 선택	논문(6학점) 선택
교원	전임 교수 3명	전임 교수 3명

기록학/문헌정보학 이중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은 문헌정보학의 핵심 4과목(Found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of Bibliographic Control, Foundation of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Foundations of Information-Based Organization Management) 과 필수 2과목(Management of Libraries and Archives, Research Methods in Libraries and Archives), 그리고 기록학의 필수 8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하며 나머지 학점은 선택과목으로 택할 수 있다. 논문을 선택하면 논문(6학점)과 나머지 9과목(27학점)을 양쪽에서 들어야하고 논문을 안 쓰는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과정에 있는 Research Collaboration(3학점)과 각 과정에서 선택 5과목씩을 해야 하며 타대학원의 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University of Toronto의 모든 학생은 특성화 영역과는 상관없이 정보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을 위해 정보학부 3개의 핵심과목인 Research Methods, Information in the Social Context, Managing Information Organization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기록학 영역의 4개의 필수과목인 Archives Concepts and Issues,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Archives Programs and Services,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를 수강해야 한다. 기록학 특성화에서는 기록학의 이론과 방법론뿐만 아니라 다중매체 기록물의 운영,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봉사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선택과목으로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ed Information, Specialized Archives, Records Management, Analytical and Historical Bibliography I/II, History of Books and Printing, Rare Books and Manuscript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racticum, History of Records and Records Keeping,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Designing Electronic Descriptive Tools, Archives: Access, Advocacy and Outreach 등이 있다. 최대한 12학점(4과목)까지 다른 전공에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모든 학생은 연구방법론 수강이 전이나 동시에 통계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컴퓨터 활용능력도 필히 갖추어야한다. 여기서는 기록학을 정보과학이란 큰 범주 아래 특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 3개의 공통과목을 갖고 있다.

그래서 UBC의 기록학 전공에서는 설정과목이 완전히 기록학에만 한정되어있고 이중 8과목이 필수과목인데 비해 University of Toronto의 경우에는 기록학이 특성화 영역으로 이루어져 설정과목이 정보과학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정보학부의 공통 필수 3과목과 기록학 필수 4과목, 총 7개의 필수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두 대학원의 필수과목에서 공통되는 것은 기록물의 배열과 기술, 연구방법론이며 개설과목수와 과목명만 보더라도 UBC는 기록학의 기능을 상세히 나누어 많은 세부적인 기록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반면에 University of Toronto는 기록학의 범주를 크게 포괄적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정태(2000)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이 주관하는 3개 대학교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서는 전공 필수과목이 기록관리학 개론과 한국기록관리의 역사로 2개만 해당되었으며 전공 선택과목

으로는 11개-24개의 과목이 설정되어있어서 필수과목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선택과목의 수는 개설과는 상관없이 캐나다보다 많이 설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실습

UBC의 인턴쉽은 수업 중에 배운 지식을 실무 환경에 시험해보고 기록관리자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활동에 대한 경험을 얻고, 보고서를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실무경험과 간접적인 업무 관찰로 구성되며 기록보존소에 배치되어 경력이 많은 기록관리자의 감독 아래에서 기본적인 기록학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데, 24학점의 필수과목을 마친 후에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담당교수에게 2월 중순까지 신청해서 5월~7월(3개월)간 실시된다. 실습기관은 법원, 교회, 기록협회, 도서관, 법무부, 교사연맹, 여가문화부서, 시립기록관, 대학 사료관, 출판사, 역사학회, 박물관, 미술관, 교육센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University of Toronto는 기록물 및 레코드 관리 실습과목인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racticum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40시간 이상의 실습과 세미나 발표, 보고서 작성을 한다. 이를 통해 기록물 및 레코드 관리 작업의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론적인 지식을 강화하는 능력이 배양된다.

이와 같이 UBC의 기록관련 실습은 매우 강도가 높아 3개월간 기록 관련 기관에 배치되어 다양한 기록관련 경험을 갖게 되는데 비해 University of Toronto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실습 과목에서 40시간 이상의 실습과 발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실무에 이론을 적용하는 경험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정태(2000)에 따르면 실습을 필수로 지정한 대학은 9개 중 3개에 불과하였고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중하여 실습 기회가 적고 실습 내용에 있어서도 주제가 한정되었다고 하여 UBC와 같이 보다 강력한 실습이나 인턴쉽 과정을 방학 기간 중 필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6. 연구 및 논문

Eastwood(2000)에 따르면 UBC의 기록학 과정에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입학한 총 97명의 학생들은 반드시 논문을 써야 했고 학위논문의 가치는 60학점 중 12학점, 즉 전체 이수학점의 20%를 차지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논문이 기록학 분야에서 상당한 크기의 문헌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석사과정생들이 전문직의 지적 진보에 창조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1994년 교과과정의 개정으로 논문은 6학점으로 선택사항이 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논문 필수를 좋아하지 않았으

며 이수학점이 60학점에서 48 학점으로 줄어들면서 논문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기도 했지만 보다 더 타당한 이유는 교수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논문 지도학생의 수를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계속 줄었는데 이는 논문을 쓰면 수강 가능한 선택과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학위를 마치는 데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혔다.

1999년 교과과정 개편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는 Archival Research and Scholarship 이라는 두 번째 학기 필수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1993년부터 학생들의 소규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Directed Research Project라는 과목이 있었지만 이 과목은 더 많은 학생들이 논문 선택을 하도록 기록 연구의 가능성과 방법론, 연구 주제를 다루며 연구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념적 토대를 깔아주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Professional Experience 라는 과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코드경영 환경이나 기록관리기관에 학생을 보내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24학점을 이수한 후에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한 120시간을 연구 프로젝트에 소요해야한다. 이 과목은 학생에게 상당한 독립성과 지적 투자, 그리고 학생과 지도교수간의 정기적인 의사교환, 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담당교수와 지도교수간의 의사교환 등을 요구하며 학생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학생의 공헌을 밝히는 출판물은 권장하고 있다.

University of Toronto에서 논문은 6학점 선택으로 학생들이 연구 전략을 배우고 연구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 관련 과목에는 Research Methods, Research Project, Advanced Research Method가 있다. Research Methods는 정보전문직 연구의 본성을 다루며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론의 이해를 돕고, 발행된 문헌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접근을 통한 비평적 분석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필수과목으로 여기서 A-이상을 받아야만 6학점인 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Research Project는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선택과목으로 일반적으로 Reading Course와 동시에 선택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충분히 읽으면서 연구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확실히 다진다. 마지막으로 Advanced Research Methods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제안하는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학생이 특수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학부에서는 Centre for Research Information Studies(CRIS)를 만들어 캐나다에 관한 특수한 데이터를 관리하며 정보전문직과 정보학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치적, 재정적 지원으로 캐나다에서 정보 전문직의 학문적 시각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연구자와 캐나다 전체의 정보전문가와 교육자를 위한 연구와 지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UBC에서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석사학위논문을 필수로 하였다가 선택

사항으로 바꿨으며 University of Toronto는 논문이 선택이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에서 A-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연구방법론에 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두 대학원 모두 연구와 관련된 과목을 3개씩 개설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Toronto는 정보학부 안에 연구소까지 갖고 있어서 기록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최정태(2000)가 작성한 대학별 교과과정 편성과정표를 보면 연구라는 용어가 들어간 과목명은 많았으나 캐나다의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 수행과 관련된 특수 주제에 관한 연구나 세미나는 드물었고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 연구가 설정되어있었다. 학위논문과 관련해서 김태수(2002)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고찰하게 하는 학위논문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연구소와 관련해서 이승휘(2000)는 기록학 전문연구소의 설치를 강조하였는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고 있다.

7. 전임교원

UBC의 SLAIS에는 총 11명의 전임교원이 있고 이중 기록학 전임교원은 3명이다. 1981년 기록학 석사과정 개설 당시 임용된 Terry Eastwood는 기록학과장으로 캐나다 법률체계 안에서 기록물, 기록물 평가, 기록물 공공 봉사, 전자레코드 경영, 대학의 문제와 문맥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관심 분야는 전자레코드의 보존, 기록물의 평가, 정부기록물로 Provincial Archives of British Columbia에서 8년간 기록관리자로 일했으며 ACA의 회장이었고 Simon Fraser University의 역사학과에서 2년간 기록행정 과목을 가르친 경력을 갖고 있다. 1987년에 두 번째로 임용된 Luciana Duranti는 이론적 연구방법론, 기록적 고문서학, 전자레코드의 보존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는 고문서학과 기록물의 개념, 레코드의 수집, 유지, 통제의 원칙과 방법이다. 제일 나중에 임용된 Heather MacNeil은 기록물의 연구와 학문성, 기록문서의 배열, 레코드경영 증거로서의 레코드 신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는 사생활 보호, 레코드 신뢰성에 대한 학제적 관점, 전자레코드의 기록적 보존이다.

University of Toronto의 FIS 안의 전임교원 12명 중 기록학 전임교원은 3명이다. Barbara Craig는 Archives of Ontario의 기록관리자였고 York University의 대학 기록관리자이면서 기록물과 특수 장서 담당자였던 경력을 갖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영국의 병원기록물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기관의 기록관 설립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해왔으며 관심 영역은 의학기록물, 19세기 공공사무소의 레코드 형태와 장르, 세계 제 2차 대전 이전의 레코드 관리, 기록물 경영과 이론이다. Wendy Duff는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에 임용되었는데 Nova Scotia의 도서관과 기록관에서 11년간 근

무했으며 Dalhousie University에서 Organization of Knowledge 과목을 가르쳤다. 관심 영역은 권위와 신뢰성을 포함하는 기록물의 기술과 전자레코드, 기관의 레코드와 레코드 유지 시스템의 기술이다. Patricia Fleming은 서지와 도서의 역사를 20년 이상 다룬 전문가로, 토론토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University of London의 분석/역사서지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임용되었다. 학회 활동도 매우 활발하며 Bibliographical Society of Canada와 Canadian Institute for Historical Microreproductions, Toronto Centre for the Book의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도서역사와 인쇄문화의 협동 프로그램 책임자로 “A History of the Book in Canada”라는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Canadian Almanac을 공동 집필 중이다.

이렇게 두 대학원의 기록학 전임 교원은 3명씩으로 전체 교원 중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경력을 보면 기록 관련 기관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공 영역이나 관심 영역이 각자 분명히 구분이 되고 최근 임용된 교원은 기록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록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풍부한 기록 관련 실무 경험과 기록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보다 많은 전임교원이 대학교에 충원되어야만 기록학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8. 전문 협회의 교육 지침서

가. ACA의 기록학 교육 지침서

1975년에 설립된 ACA는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를 교육이라고 보고, 기록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Guidelines Towards a Curriculum for Graduate Archival Training Leading to a Master's Degree in Archival Science*(1976)를 채택하였다. 이 지침서는 석사학위 수준의 기록학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고, UBC의 MAS 프로그램 개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onsultive Group on Canadian Archives(1980)는 그 당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학 교육이 다른 전문직 교육과 비교해 볼 때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강력한 기록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81년에 UBC에 기록학 석사과정이 개설되고 점차 교육 활동 및 교육 기회가 많아지면서 1989년에 ACA 교육위원회는 기존의 지침서를 개정하여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Year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me*을 발행하였다. 개정된 지침서는 기록학 전문직의 지식 영역을 정의하고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논하였다. 이 지침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관리자들에게 적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2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는 진제하에 작성되었다. 지침서에서는 대학원의 기본 요소로 소속, 교원, 학습자원, 학생을 들었고 교육적 요소로 입학 조건, 교과과정의 범위, 교과과정 주제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기본요소인 기록학 교육프로그램의 소속에 대해서 ACA 지침서는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가장 먼저 연관시켰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 대학원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요소까지 포괄하는 전문적 교육의 특성을 가지며, 서비스 지향적이고 동일한 교육방법과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역사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에 소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기본요소인 교원에 관해서는 자질과 경험, 교수 방법 지식을 소유한 기록전문가 출신의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를 두어야 하고 교원의 수는 기록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과목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초기에는 한 명의 전임강사가 개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나머지 시간강사들이 기타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현장에 있는 실무 기록관리자들을 겸임교원으로 임명하고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제시하였다. 세 번째 기본요소인 학습자원에서는 이론과 실무의 속성을 모두 갖춘 학습자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도서관 서비스를 필수 요소로 보고 기록학과 관련된 문헌을 소장하는 것 외에 주변의 기록관련 기관들과 교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수많은 기록관련 기관과 기록관리자들의 커뮤니티 접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시간제보다는 전적으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대학 성적과 추천서를 검토한 후에 지원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적성과 지원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요소에서 첫째, 입학조건은 다른 분야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명시하였다. 또한 캐나다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과 영어 이외에 최소한 한 개의 외국어 독해능력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교과과정의 범위는 기록업무의 실무적/학문적 특성과 보편적/개별적 특성의 조화를 위해 강의·세미나·과제·발표·현장학습 등의 교육 형태를 적절히 혼합하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소 2개월의 실습과 보고서 작성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른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논문은 기록학의 지적 속성과 기록업무의 학술적인 본질, 그리고 다른 대학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록학 프로그램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므로 대학원 수준의 기록학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2년 과정 대학원 프로그램은 1학기 5과목, 2학기 5과목, 두 학기가 끝난 여름에 실습, 3학기에 5과목을 마치고 4학기 째에 논문을 쓰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교과과정은 자료 생산 및 기록업무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과목,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핵심과목, 방법론 과목과 다른 분야와 공통된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4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세부 주제들은 <표 2>와 같다.

〈표 2〉 ACA 1989 기록학 석사 프로그램 지침서 중 교과과정의 주제

주제영역	세부주제
기초 (Foundation)	지적 역사(Intellectual history) 캐나다의 행정사(Administrative history of Canada) 기록관리자들을 위한 법적 요소(Elements of law for archivists)
핵심 (Core)	기록학과 기록물의 역사(Archival Science and history of archives) 레코드 관리(Record management) 북미기록관의 조직 및 행정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American archives)
방법 (Methods)	고문서학(Diplomatics) 자동화와 기록물(Automation and Archives) 소장 기록자료 기술의 특수한 방법 (Specialized methods for description of archival holdings)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기타 (Other)	예방적 보존(Preventive conservation) 경영학(Management Science) 재정회계학(Financial Accounting)

하지만 이 지침서는 1980년대 말에 나온 것으로 정보 환경의 변화와 학문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실시되는 교육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예로 현재 기록학 교육 전임교원이 3명씩 임용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서는 한명의 전임교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외국어와 논문 필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최근 기록학 교육의 안내서 역할은 ACA의 지침서이기 보다는 오히려 SAA의 최근 개정된 지침서가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SAA의 기록학 대학원 프로그램 지침서

현재까지 SAA는 대학원 수준의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4번의 지침서를 발행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2002)는 기록학 교육의 사명과 목표, 교과과정, 행정 및 교수진에 대한 최소한의 지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교과과정의 5대 목표는 첫째, 기록학 이론, 방법론, 실무와 학문성에 대한 확고한 기반 제공, 둘째, 관련 분야의 지식 습득을 통한 기록학의 기반 강화, 셋째, 기록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능력 배양, 넷째 학문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의견교환 조장, 다섯째, 전문적 사회적 책임과 기록학 업무의 윤리 도덕성 배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과과정은 기록관리자에게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기록학 지식과 기록학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학제적 지식이 학생들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AA는 <표 3>과 같이 기록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크게 핵심기록학 지식과 학제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핵심기록학 지식은 기록학 기능 지식, 전문적 지식, 상황적 지식으로 나누어 하부 영역을 제시하였다 기록학 기능지식은 기록학 업무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평가와 수서, 배열과 기술, 보존과 재포맷, 참고봉사와 접근, 서비스의 확장과 지원, 관리와 행정이란 6가지의 세부 요소로 구성되었다. 전문적 지식은 기록문서와 기록학의 역사, 기록물과 문화유산, 윤리와 가치란 3개의 요소로 이루어졌고 상황적 지식은 사회적/문화적 시스템, 법적/경제적 시스템, 기록물과 정보관리, 디지털 기록물과 접근 시스템인 4개 요소로 나누었다. 학제적 지식으로는 8개의 관련분야 지식인 정보기술, 보존, 연구 설계와 수행, 역사와 역사적 방법론, 경영, 조직이론, 교양과목, 관련 전문직의 지식을 제시하였다. 최소한 18학점의 핵심지식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며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연구와 인턴십과 같은 실무 경험도 포함시켰다.

<표 3> SAA 2002 기록학 대학원 프로그램의 지침서 중 교과과정

지식의 종류	지식의 세분	지식의 내용
핵심기록학 지식	기록학기능 지식	평가와 수서(appraisal and aquisition) 배열과 기술(arrangement and description) 보존과 재포맷 (preservation and reformatting) 참고봉사와 접근 (reference and access) 서비스의 확장과 옹호(outreach and advocacy) 관리와 행정(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전문적 지식	기록물과 기록 전문직의 역사 (history of archives and archival profession) 레코드와 문화유산(records and cultural memory) 윤리와 가치(ethics and values)
	상황적 지식	사회적/문화적 시스템(social and cultural systems) 법적/경제적 시스템(legal and financial systems) 레코드 및 정보관리(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디지털레코드와 접근시스템(digital records and access systems)
학제적 지식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보존(conservation) 연구 설계와 수행 (research design and execution) 역사와 역사적 방법론(history and historical methods) 경영(management) 조직이론 (organizational theory) 교양과목 (liberal arts and sciences) 관련 전문직(allied professions)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및 교수의 기본구조를 교수진, 프로그램 기간, 교과과정 구조, 자원과 시설, 행정적·직업적·경제적 지원이란 5개의 부분으로 세분하여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인 기록학 대학원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또한 기록학 프로그램의 특성에 보다 많은 융통성과 다양성을 부여했으며 프로그램의 독창성, 자율성, 독립성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와의 학제성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ACA 지침서는 SAA 지침서에 비해 발행년도가 13년이나 뒤쳐진 것으로 내용상의 차이가 불가피하며 당연히 지침서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기록학 교육 지침의 기본 바탕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지침서들을 보면 석사과정 수준의 프로그램 설정, 학제성의 강조, 전임 교원의 필요성,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 지식과 언어 독해 능력, 다양한 교육방법과 주제의 선택, 실습과 논문의 강조, 최소한 18 학점(6과목)의 기록 핵심과목의 이수,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다양성 부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지침서에서는 핵심 또는 핵심기록학 지식이라고 구분했을 뿐 교육 내용에서 특정 영역을 강조하거나 전체적인 비중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각 대학원이 자율성과 독창성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같은 전문 단체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기록학 표준 교육과정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대학원마다 자체적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기록관리 전문가와 관련 학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전문 단체에서 교육지침서의 개발을 서둘러 표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학 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가 한국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데 김상호(1998)는 기록보존학 교과영역으로 기초영역, 기록물 영역, 기록물관리 영역, 기록보존학 관련 영역으로 나누어 기록물의 생성 배경 및 활동, 기록물의 성격, 기록보존활동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상민(1998)은 기록물 생산 환경과 전후맥락에 관련된 지식, 기록관리 관련 지식, 보조지식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과목들을 제시하였다. 김기석(2000)은 서울대학교의 협동과정의 경우, 기록생성 관련 과목, 기록과학 관련과목, 보충 영역 교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최정태(2000)는 교과목의 영역을 기초, 내용, 관리, 보충,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관리 영역 분야의 교과목 개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집, 보존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실무에 강조점을 두었다. 최근 김태수(2002)는 기록전문교육과정의 영역으로 내용 관련 영역, 기록관리 영역, 보존 영역, 기타영역과 학위논문을 제시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록학 교육과정을 4-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SAA의 교육지침서에서 다른 내용들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기록학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IV. 결 론

한국의 기록 전통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기록학이 공식적인 대학원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최근이다. 기록학 교육과정과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 중에서 외국의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분석은 한국 고유의 기록학 토대와 이론을 단단히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기록물의 특성과 관행이 다르므로 선진외국의 기록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외국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 배워야할 점은 배우고 한국 고유의 기록학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북미에서 기록학 석사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기록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기록학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캐나다의 기록학 프로그램은 개별화와 특성화를 분명히 이루고 기록 및 레코드 관리를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캐나다 기록학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면 UBC는 독립된 기록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치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고, University of Toronto는 정보과학이란 큰 범주 안의 특성화 영역의 하나로 기록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두 대학원 모두 석사학위 이수학점은 모두 48학점(16과목)으로 필수과목은 SLAIS의 경우 기록학에서만 8과목, FIS는 정보과학 공통 영역에서 3과목과 기록학에서 4과목 총 7과목을 수강해야만 했다. 두 대학원의 필수과목에서 공통되는 것은 기록물의 배열과 기술, 연구방법론이었으며 FIS는 기록학의 범주를 크게 나누어 다루는 반면, SLAIS에서는 기록학의 기능을 상세하게 나누어 다루고 있었다. 과목명에서 3번 이상 사용된 용어는 기록물(18), 정보(11), 레코드(10), 경영(8), 연구(5), 기술(3), 봉사(3), 전자(3)로 기록학 교육에서 주로 언급되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습은 SLAIS의 경우 3개월간의 인턴십, FIS는 practicum으로 대신하였다. 두 대학원 모두 연구와 논문을 장려하였고 논문을 선택으로 바꾸었지만 권장하였으며 프로젝트 중심의 과목을 만들어 연구 수행과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였다. 특히 두 대학원의 기록학 전임 교수는 전체 교원의 25%를 넘을 정도로 많은 편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문헌정보학 대학원 안에서 특성화나 중점화 과정으로 있는 기록학 분야의 전임 교원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당한 비중의 기록학 전임 교수들은 기록관리자로서의 많은 경력을 갖고 각 대학원에 교수로 임용되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교수로 남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출판을 하고 있었다.

기록 관련 전문 협회인 ACA와 SAA는 모두 기록학 교육지침서를 발행했는데 ACA의 지침서는 1989년에 나온 것으로 오래되어서 현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캐나다의 역사, 외국어 독해 능력, 석사학위 논문 필수 등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발행 시기의 차이를 넘어 두 지침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교육 내용은 기록물의 법적 요소, 기록물과 기록학의 역사, 레코드 관리, 조직 정보기술(자동화), 기술(description), 연구방법, 보존, 경영, 재정이었다. ACA는 1980년대 말엽 당시, 지적 역사, 캐나다 행정사, 북미 기록관 등 역사와 지역적 특성의 기록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SAA는 2000년대에 들어 기록학의 세부 기능 지식, 문화유산으로서의 레코드, 윤리와 가치, 사회 문화적 시스템, 디지털 레코드와 접근 시스템, 교양과 관련 전문직의 학제적 지식을 중요하다고 보아 여기서도 기록학의 시대적 흐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캐나다의 기록학 대학원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한국의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의 시작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며 사학과 중심의 협동과정이 아직까지는 많으나 디지털 환경과 함께 문헌정보학적 접근을 보다 많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학 전공 이수학점인 24학점(8과목)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공 이수학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전공 필수과목이 최소한 12학점(4과목) 이상 설정되어 기록학의 기본 개념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정된 선택과목의 보다 많은 개설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넷째,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중하여 실습 기회도 부족하고 실습 내용도 충분하지 못하므로 방학 기간을 이용한 보다 강력한 실습이나 인턴십 과정의 필수화가 요청되며 실습은 각 대학교의 특수 장서실, 사료관, 박물관을 시작으로 외부의 기록 관련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과 다양한 기록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연구 수행을 위한 특수 주제에 관한 연구나 세미나 교과목의 설정과 학위논문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록학 관련 연구를 촉진할 기록 전문 연구소의 설치같은 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여섯째, 앞으로 풍부한 기록 관련 실무 경험과 기록학 전공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보다 많은 전임교원이 대학교에 충원되어야만 기록학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더 빨리 자리잡을 수 있다. 일곱째, 기록관리 전문가와 관련 학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전문 단체에서 교육지침서의 개발을 서둘러 표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학 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이러한 기록학 교과과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각적인 측면이 다루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역사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기록학 교육과 불어권의 기록학 교육을 제외시켰다는 한계점을 갖지만 폭넓은 문헌연구와 각 대학원의 웹사이트 분석, 권위 있는 협회가 발간한 지침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학 교육과정은 문헌정보학, 역사학 등의 프로그램을 단순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

라 기록학 고유의 속성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기록학 교육은 기록물의 특성을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기록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구분하고 연구와 경험적 학습을 모두 중시하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특성을 가져야한다. 또한 기록관리 원칙과 기술을 철저히 이해하고 행정적, 법적, 경제적, 역사적, 경영적, 정보학적 교육과 함께 기본적인 기록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학 전공이란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연구를 수행해 온 유능한 전임 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기록학 교과 과정은 핵심 필수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핵심과목에서 얻은 개론적인 지식을 보다 깊이 있게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주의 선택과목을 제공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오늘날과 같이 학제적 성격이 강한 환경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융통성과 적용가능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록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전문 학·협회, 기록 관련 기관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학계와 실무의 긴밀한 협조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 교과과정 개발, 공동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며 학생들에게도 기록학의 학문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해 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 경험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외에도 학계와 실무는 공통 관심사를 지원하는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기록관리자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의 기록관리자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고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며 이론과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록학 분야의 많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고 진정한 기록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로 기록학 분야에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대학원 교육은 학부와 달리 선택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인식과 자세, 자신감을 형성시켜 주어야한다. 그러므로 대학원 수준의 기록학 교육은 기록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정보전문가보다 기록업무의 사명을 가진 기록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자의 역할과 가치, 지속적인 학습 태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석. “아키비스트의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학연구》 제1권, 제1호(2000. 4). pp. 77-105.
- 김상호. “한국 기록보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 28

- 권(1998. 8). pp. 39-59.
- 김태수.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제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2권, 제 1호(2002. 4). pp. 7-39.
-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11권(1998. 12). pp. 109-141.
- 이승휘.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중국인민대학 당안학원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1권, 제1호(2000. 4). pp. 189-217.
- 최정대.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향방: 신설 9개 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서”, 《기록학연구》 제2권, 제1호(2000. 10). pp. 169-193.
-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Education Committee.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 Year Curriculum of a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December 1988)." *Archivaria*, No. 29(Winter 1989). pp. 139.
- Canadian Archives: Report to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of Canada by the Consultative Group on Canadian Archives*. Ottawa: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of Canada, 1980.
- Casey, Barbara J., Carman, Caroll V., and MacDonald, Bertrum H. "Convergence in Information Studies, Archival Studies, Librarianship, and Records Management: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ograms."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Vol. 22, No. 2(July 1997). pp. 30-48.
- Cook, Sharon Anne. "Connecting Archives and the Classroom." *Archivaria*, No. 44(Fall 1997). pp. 102-117.
- Couture, Carol. "Today's Students, Tomorrow's Archivists: Present-Day Focus and Development as Determinants of Archival Sci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chivaria*, No. 42(Fall 1996). pp. 95-104.
- Cox, Richard J., Elizabeth Yakel, and David Wallace. "Archival Education in North Americ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 *Library Quarterly*, No. 71(2001). pp. 141-194.
- Craig, Barbara Lazenby. "Serving the Truth: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rchives Research in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a Modest Proposal for Partnerships with the Workplace." *Archivaria*, No. 42(Fall 1996). pp. 105-117.
- Eastwood, Terence M. "Nurturing Archiv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In: *Canadian Archival Studies and the Rediscovery of Provenance*. Metuchen: Scarecrow Press, 1993.
- Eastwood, Terence M. "Reforming the Archival Curriculum to Meet Contemporary

- Needs." *Archivaria*, No. 42(Fall 1996). pp. 80-88.
- Eastwood, Terry. "Archiv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xperience." *American Archivist*, Vol. 63, No. 2(Fall/Winter 2000). pp. 243-257.
- Eastwood, Terry. "The Origins and Aims of the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m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rchivaria*, No. 16(Summer 1983). pp. 35-52.
- Eso, Elizabeth and Robin G. Kierstead. "A Survey of Students of the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1-88." *Archivaria* 29(Winter 1989). pp. 104-27.
- Klumpenhower, Richard. "The MAS and After: Transubstantiating Theory and Practice into an Archival Culture." *Archivaria*, No. 39(Spring 1995). pp. 88-95.
- Peters, Evelyn. "Measures of Success: Evaluat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s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 *Archivaria*, No. 45(Spring 1998). pp. 80-103.
- Schaeffer, Roy. "From Graft to Profession: The Evolution of Archival Education and Theory in North America." *Archivaria*, No. 37(Spring 1994). pp. 21-34.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Directory of Archiv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ttp://www.archivists.org/prof-education/dir-part1.html>>

